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잠언31, 10-13, 19-20, 30-31

[화답송] 시편128(127), 1-2, 3, 4-5(◎1-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제 2독서] 1테살5, 1-6

[복음 환호송] 요한15, 4.5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복음] 마태25, 14-30 또는 25, 14-15, 19-21

성가	8시 미사	입당 229	봉헌 212 513	성체 497 506	파견 444
	11시 미사	입당 229	봉헌 212 513	성체 497 506	파견 444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11월 16일)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 23일)		대림 제 1주일(11월 30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안토니오(휘)	1구역
제 1 독서	최베네딕토(환준)	심미카엘(태규)	정프란치스코(일환)	최다니엘(대연)	이바오로(명국)	1구역
제 2 독서	최베네딕타(수영)	심헬레나(승화)	정글라라(영희)	김엘플레다(수연)	정스텔라(애리)	1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움직임의 시간과 한숨의 시간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 마태오 복음과 비슷한 설정이 루카 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보다는 맡겨진 금액이 훨씬 큰 것이 눈에 띕니다. 루카 복음에서는 각각 한 미나(100데나리온=60분의 1 탈렌트)씩만 맡기지만, 마태오 복음에서는 첫 사람에게 다섯 탈렌트(=30,000데나리온), 둘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12,000데나리온), 셋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6,000데나리온)를 맡깁니다.

아주 큰 금액이 맡겨진 것입니다.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도 사실 충분한 금액이 맡겨졌습니다. 충분한 금액과 충분한 탈렌트! 우리가 받은 것이 적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는 정말 초라한 탈렌트만 주어졌을까요? 혹은 초라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지레 겁먹은 것이 아닐까요?

남보다 적게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마태 25, 19) 이 ‘오랜 뒤’는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에게 위탁 재산을 활용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금방 셈하시지 않고 시간까지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움직임의 시간’과 세상을 탓하는 ‘한숨의 시간’이 잘못 섞여 버리지 않았는지요?

움직이면 될 것을, 한숨으로 나를 어딘가에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치 “맡겨진 한 탈렌트마저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마태 25, 18)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땅에 돈을 그냥 묻어 두는 행동은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그에게 해명할 명분만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변명거리를 미리 준비해 두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그냥 숨겨둔 채 숨죽이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숨겨둔 수많은 탈렌트들이 있습니다. 우

리 공동체에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탈렌트들이 그냥 묻혀진 채 또 시간이 지나고 있음을 봅니다.

아주 작은 봉사라도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청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두려운 나머지... 도로 받으십시오.” (마태 25, 24-25) 셋째 종의 변명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듯이 보이지만,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주인의 위탁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일로 여길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이 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길 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 그는 주인의 됴됨이를 관대함이 아닌 탐욕과 냉혹함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게으름을 먼저 탓하기 전에 주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탓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들고 맙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나에게 주어진 탈렌트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강귀석 신부
서울 대교구 명일동성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어떤 성당에서의 일입니다. 이 성당은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된 아주 아담한 성당이었는데, 저는 이 성당의 초대 신부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고 첫 미사를 봉헌하는 날, 저는 제의실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미사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해설자의 시작 인사 후 입당성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반주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반주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여 분심이 다 들 정도였습니다. 분심 속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만난 반주 자매님께서 무척이나 쑥스러워하시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분심 많이 드셨죠?”
“아! 예, 뭐....” “사실은 제가 반주를 배운지 얼마 안 되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자매님께서 세례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처음 성당에 나와 보고 반주자가 없는 모습이 무척 놀라왔다고 합니다.

주변의 예배당을 보면 우리 성당보다 훨씬 작은 곳도 목사 사모가 있어서 예배 때 반주가 가능한데, 우리 성당에서는 반주도 없이 미사 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해 평생 피아노를 배워 본 일은 없지만, 당신이 배워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본당과 공동체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 자매님의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니 부족하게만 들리던 반주도 아름다운 찬미와 감사의 노래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본당에 있는 동안 내내 그 자매님은 열심히 반주 봉사를 하셨습니다. 따로 하시는 일이 적지 않으셨음에도 반주 봉사만큼은 빠지지 않고 나와 주셨습니다. 사실 오십이 다 되어 시작한 반주인지라 실력이 아주 더디게 늘었지만, 그래도 항상 연습하고 준비하고 오셨기에 미사 봉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말씀을 보면 주인은 종들을 불러 그 능력에 맞춰 각각 다섯 달렌트, 두 달렌트, 한 달렌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다섯 달렌트와 두 달렌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열심히 돈을 벌지만, 한 달렌트를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돌아온 주인에게 좋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한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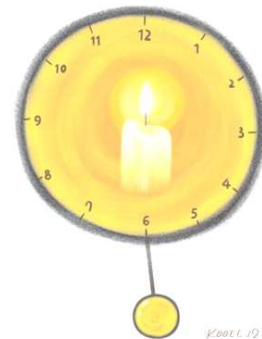
달렌트

렌트의 가치는 6,000명분의 일당이니 주인은 정말 많은 돈을 믿고 맡긴 것입니다. 주인의 믿음대로 두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은 주인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주인을 오직 ‘모진 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어찌 생각하는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봉사를 못 하는가? 아니면 마음이 없어서 봉사를 안 하는가?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믿으시기에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이사 6, 8)라고.

**김재욱 사도요한 신부
인천교구주안1동 본당 주임**



세상 종말이 가깝고 멀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에
늘 대비하는 것이다.

글_ 알베르 반호이(Albert vanhoye) 추기경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평범한 비범함에 깃든 영성

독서자가 큰 소리로 /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데

식탁 위의 반찬도 / 손가락 젓가락도

나보다 먼저 옆디어 / 기도를 바치고 있네

침묵 속에 감사하며 / 엄숙하게 먹는 밥도

수십 년이 되었건만

나는 왜 좀 더 거룩해지지 못할까 / 밥에게도 미안하네

멀리 바다가 보이고 / 창가에선 고운 새가 노래하고

나는 환히 웃으며 / 일상의 순례를 시작하네

- 이해인의 시 <수도원의 아침식탁> -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트위터(2013.12.13.)에 ‘거룩함은 특별한 것을 행함을 뜻하지 않고, 사랑과 신앙으로 평범한 것을 행함을 뜻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의 묵상 끝에 “주님, 저의 평범한 일상이 사랑의 지향과 행동 안에서 아름답고 비범한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 글방에는 신영복 선생님이 써주신 평상심이라는 글씨가 걸려있고, 성녀 소화데레사의 자서전에 나오는 평범한 비범함에 대한 글귀들, 논어에서 발췌한 수기안인(修己安人) 글씨로 만든 족자 등,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별도의 종이에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늘 푸른 평상심으로 오늘도 새롭게!’ 라고 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어느덧 반세기를 살아왔어도 이 평범한 비범함에 깃든 영성을 겸손하고 인내롭게, 더구나 사랑을 넣어서 살아내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일 등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오는 행복은 단지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단단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좀 더 특별한 것을 체험하고 싶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 문

학의 길에서도 좀 더 멋지고 특별하고 싶은 욕심과 허영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어 나를 괴롭힐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평범하지 않고서는 특별한 것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지루한 사막처럼 여겨지기도 할 테지만, 나를 시간 속에 길들이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바로 평범함을 견디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평범한 길에서 멀리 있어 눈물 흘린 날들도 많았지만 평범함의 행복을 다시 살고 또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한 날들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평소와 같은 마음이 날아 주는 수수하고도 순수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주인공이 되도록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평범한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일상에 대한 충실함이 성화의 첫 걸음임을 잊지 않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의 흰구름이 예쁘게 손 흔들며 웃어 줍니다.

이해인 수녀·시인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사목서간 : 티모데오전후서, 티토서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티모데오 전후서와 티토서, 이 세 편지는 교회를 이끄는 사목자들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에 전통적으로 ‘사목 서간’이라 불렸습니다.

사목 서간은 당시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던 여러 논쟁과 갈등을 겨냥하여 교회의 질서와 ‘건전한 가르침’의 보존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목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관점들에 맞서 싸울 권위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목 서간의 공동 관심사는 사회와 가정과 교회의 질서입니다. 저자는 교회 구성원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질서에 순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신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교회를 가정의 연장 혹은 하나의 큰 가족으로 생각하고, (1티모 3,15) 가정에도 위계질서가 있듯 교회에도 위계질서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교회의 지도부에는 ‘주교’와 ‘원로들’이 있어서 이들이 원로단을 형성하여 신자들을 다스리고 안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직무를 맡깁니다. (1티모 4,14; 5,22)

교회 구성원들은 원로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원로단과 일반 신자들의 관계는 가장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비견됩니다. 둘은 어버이다운 다스림과 자녀다운 순종의 관계인 셈입니다.

교회 직제와 건전한 가르침의 식별 문제도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 지도자의 임무 가운데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건전한 가르침을 식별하고 보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지도자는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격려’ 하고 반대자들을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토 1,9) 여기서 건전한 가르침이란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 (1티모 1,11)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바오로에게, 바오로에게서부터 티모데오와 티토에게, 그리고 이들에게서 다른 충실한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2티모 1,8-14; 2,12; 티토 1,5,9)

이 전승의 사슬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 전승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하며 원로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혼인이나 특정 음식을 금지하며, (1티모 4,3)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가르침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2티모 2,18)

‘사이비 지식’을 주의하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1티모 6,20)

사목 서간의 관점은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 상황과 잘 부합합니다. 곧 주교를 우두머리로 하고 그 아래 여러 원로가 함께 교회 지도부를 형성하는 식입니다. 당시에 발달한 ‘사도적 계승’ 개념도 엿보입니다.

사도들에게서 유래한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이 적법한 계승절차를 통해 다른 지도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2티모2,1-2) 여기서 알 수 있듯 교계 제도는 상명하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서로 돌보며 교회 안에 건전한 가르침은 보존하고 거짓된 가르침은 몰아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도는 바랐을 것입니다. 모든 목자와 양떼가 하나가 이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2티모 4,7)하고 말할 수 있기를.

송해경 박사
한남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11월 16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박대건안드레아(월년)	박세레나(동신)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이마리아/김바오로	이아나스타시아
	연	유요셉(일왕)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최데레사(상화)	유데레사
	연	김라파엘	김데레사(정복)
	연	차예로니모(창섭)	차루시아
	연	송소피아(성은)	안마리아(은순)
	연	안안나(옥순)	안마리아(은순)
	연	돌아가신레지오단원	자비의모후Pr.
	연	연옥영혼들	사도들의모후Pr.
	연	불쌍한연옥영혼들	대건산약회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박길자/박영욱	차리디아
	연	부모님	차리디아
	연	부모님과형제들	김데레사(정복)
	연	한봉희	이베로니카(성연)
	연	양가부모님들	육아오스딩/아가다
	생	원안젤라(은규)	부모님
	생	김엘리사벳(영희)	김아네스(순이)
	생	윤엘리사벳	김아네스(순이)
	생	심데레사(연자)	이골롬바(정연)
11월 18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11월 22일 토	연	연옥영혼들	순교자들의모후Pr.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86	192	29	307
헌 금	\$552	\$1,275	\$44	\$1,871

< 교무금 > \$5,590

박민진(10) 김세록(8-10) 최옥경(10-11) 김영순(11)
 유춘성(9-10) 유경돈(9-10) 강수영(10) 김관숙(11)
 임윤택(11) 김정복(11) 남금지(11) 서춘애(11-12)
 이경섭(9-11) 조진석(7-12) 양인심(11-12)
 이완수(11-12) 최순일(11) 부건화(9-10) 전문자(11)
 정일환(5-12) 황정희(11) 이성재(11-12) 이선희(11)
 이욱경(10-12) 조상호(10-12) 육승주(11) 구창희(11)
 변귀태(11) 추혜성(9-12)

< 성소후원금 > \$40

임윤택(11) 김정복(11) 이선희(11)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오늘은 윤성진 루카/루시아 가정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미사 시간 변경 안내

11월 27일(목) 미사가 저녁 6시로 변경됩니다.  
미사 후 Thanks Giving Day 식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 510-292-5815

◆ 2차 헌금 안내

11월 23일 :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대림절 성경 쓰기 : 요한복음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대림특강

일시 : 12월 14일(일) 미사 중  
강사 : 조마오로 수녀님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가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그룹 오리엔테이션

일시 : 11월 16일(오늘) 오후 1:30 ~ 3:30  
장소 : 교육관 106호실

◆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

일시 : 12월 14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친교실

◆ 요아킴회/안나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

일시 : 12월 7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행사 : 정기총회 및 차기 회장 선출  
점심식사, 가곡 독창/피아노 연주 및 국악마당  
\* 회원 모든 분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기대합니다.

**11월 구역모임 고린도우서 1-2장**

|       |               |             |
|-------|---------------|-------------|
| 2 구역  | 11월23일(일) 6시  | 배짚마 덕       |
| 7-1구역 | 11월22일(토)12시반 | 파운더스룸       |
| 9 구역  | 11월29일(토) 6시  | 설승진토마스아퀴나스덕 |
| 10 구역 | 11월23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 11월 10일 ~ 2015년 2월 6일  
문의 : <http://ci.catholic.ac.kr>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Brown Bag 식료품 무료배급

일시 : 매월 첫째와 세 번째 토요일 10시  
문의 : 510-580-7880

◆ 2014년도 약정하신 교무금과 그 외 약정하신 다른 봉헌금들을 연말 안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당 제대꽃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사무실로 알려 주십시오.

◆ 헤어컷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00을  
트라이밸리 성전기금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엘리사벳(11/17) : 김영희, 김희숙, 이숙강, 양인심,  
조영순, 박수경
- \* 힐다(11/17) : 허희나
- \* 세실리아(11/22) : 허홍숙, 박미숙, 이혜란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